

대만 섬유 수출의 타깃, 중국

대만의 섬유와 의류 수출업자들은 중국과 더욱 밀접한 관계가 형성되길 바라고 있다. 텍스타일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이러한 기회는 2년간 3단계에 걸쳐 136 품목의 대만 섬유와 의류 제품 수입에 대한 중국의 관세 철폐에 의해 나타났다.

특히, 양국간의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은 대만 제조업체들의 중국 섬유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136 품목의 대만 섬유와 의류 제품 수입에 대한 중국의 관세 철폐 >

최초의 양허관세는 2011년 1월에 발효되었고, 두번째와 세번째의 경우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 협정 이전에 중국은 대만으로부터 합성 섬유와 원사의 수입에 대해 5%의 관세를, 직물과 의류 수입의 경우에는 각각 10%와 14~18%의 관세를 부과하였다.

텍스타일 인텔리전스에 의하면 중국에 수출하는 대만의 섬유와 의류는 2010년에 23% 성장하여 22.5%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였다. 이 수치는 향후 몇 년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홍콩에서의 대만의 섬유와 의류 판

매는 15.1% 증가하는데 그쳐 수출 점유율이 13.6%에서 12.9%로 감소하였다.

대만의 직물과 의류산업은 고용과 생산량 측면에서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서양 국가들의 현지 생산 방식은 저비용의 아시아 제조 회사와 경쟁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그 결과 대만의 제조 회사는 혁신 제품과 자동화를 강조한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대만의 몇몇 기업들은 친환경 의류 생산을 위한 합작 투자 회사를 형성하고 있다. 제조업자들은 고품질과 혁신적인 디자인 제공으로 인하여 국제 시장에서 프리미엄 가격 확보를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언급하였다.

하지만 대만은 유럽의 기업들과 대등한 경쟁을 위해서는 브랜드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